

## 2009 Korea/Europe Travelling Fellowship

가천의대, 대구가톨릭의대

Young-Gyu Kim · Chang-Hyuk Choi<sup>1</sup>

2009 Korea/Europe Traveling fellowship 에 김영규교수와 함께 2009년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의 일정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1회 이광진교수님과 이용걸교수님께 이은 2번째 방문이나, 아직 유럽쪽에서 오지는 않는 일방 방문으로써, 앞으로 아시아-유럽의 정식 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가는 준비단계라 할 수 있었다.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의 스키 휴양지인 Val d'Isere에서 열리는 7th Advanced course on shoulder arthroscopy 에 참가하여 유럽쪽의 관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었다. 스키 외에는 할게 없는 고립된 지역이어서인지, 350여명의 참가자들이 처음부터 학회가 끝날 때까지 학회장을 가득 메우는 열기를 보였다. 견관절분야 전반의 이슈 및 치료방침에 대해 청중들의 voting 과 패널들의 토론을 통해 활발하고도 솔직한 견해를 들을 수 있었으며, 연자들의 동영상을 이용한 Re-live surgery도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마디병원의 김승호원장이 이시아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연자로 참가하여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볼 수 있었다. 학회를 마친 후에는 리용으로 이동하여 Dr. Walch의 병원을 방문하였다. 2004년 개인적으로 방문한 이래 5년만의 다시 왔음에도 세월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함은 나의 발전이 더딘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새로운 배움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학회의 발전으로 주어진 기회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Walch의 외래 진료와 수술을 참관하였으며, 외래에서는 septic shoulder after prosthesis로 debridement 후 stem제거를 기다리는 환자, 81세 TSR후 좋은 경과를 보이는 환자, massive RCT w/ full ROM, Hemi prosthesis후 Reverse revision환자 로 stem lengthening이 있는 환자 등 치환술 환자들이 많았으며, Walch는 2-2.5 cm정도의 lengthening을 허용한다고 하였다. 재미있는 증례는 한국에서도 발표하였던 isolated IST tear 환자( 2번의 injection Hx있는 젊은 여성), Instability에 대해 Latarjet OP후 fragment displacement은 환자 등 complicated case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유익한 경험이었다. 다음날 수술은 6:30분에 fellow들과 함께 만나 수술방침을 토의한 후 시작하였다. 증례는 주로 RCT와 TSR, reverse prosthesis였으며, RCR는 Double row repair를 하였다. Bursal resection은 최소로 하였는데, bleeding control과 bursa healing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TSR은 deltopectoral approach에서 SCC detach 후 humeral spur제거하여 관절면을 확인 후 head resection을 바로하고, glenoid side의 labrum을 제거 후 glenoid 및 humeral component를 삽입하고, RI closure를 하였다. RCT fatty degeneration 있을 때 reverse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1월 28일 다시 5례정도의 수술을 참관 후 Walch와 작별인사 후 Amsterdam으로 향하였다. 1~29일 유럽 견주관절학회장인 Japp Willems를 OVLG병원로비에서 만나 수술실로 향하였다. TSR for RA, LD transfer, Reverse for previous fusion등을 참관하였으며, 30일에는 시내의 병원으로 향하였다 100년 이상된 역사의 병원으로 OVLG에서 같이 운영하며, 관절경 수술등 간단한 수술을 한다고 하였다. 31일에는 Japp과 함께 암스테르담 주위의 풍차마을과 시 외곽의 제방을 구경였다. 매서운 바람과 다소 추운 날씨였지만, 네덜란드의 전원풍경을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며, 식사 후 풍차 구경을 가니 마침 풍차를 돌려주어, 자세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2월 1일에는 Milano로 이동하여 유럽 견주관절학회의 학술위원장인 Alessandro Castagna의 병원을 방문하였다. 병원에 도착하여 ambulatory OP room으로 들어가니 잘 조직된 시스템으로 되어있어 12

개의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실제 10개의 수술을 마치고 6시가 좀 지나, scientific meeting을 하였는데 의국원이 4개, 김교수와 내가 각각 하나씩 발표한 후, Castagna의 집으로 초대되어 저녁식사를 하였다. 2월 3일에는 개방수술을 하였으며, chronic instability w/ coracoids pr. Fx. 환자로써 Latarjet OP를 하였다. 이미 떨어진 coracoid를 이용하는 변형된 방식으로 생각되었다. 2번째 증례는 Castagna의 스승이자 이탈리아 견관절학회의 창시자인 Pf. Mario Randelli가 집도하였다. Lima system을 만들기로 한 사람으로써, 1282년에 시작하여 1992년에 이탈리아 학회를 창립하였다고 하였다. Lima system은 metal backed glenoid system으로써, reverse와 anatomic system의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cement를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Castagna는 deltoid의 tension 및 lever arm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44 mm의 glenoid head를 쓴다고 하였다.

2월 4일 여행을 마치며 돌아오는 순간에 이번 일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Val d' Isere meeting 및 방문한 병원의 모든 의사들의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한 부분에서 인정받고 유지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다. Reverse의미를 생각하는 여행이었다. 유럽의 의사들이 시도하는 생각 또한, 원래 전통적인 생각의 바탕이 있겠지만, 나의 경험과 그 동안의 지식에 비추어 본다면 reverse concept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주었으며,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거꾸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속단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개방 수술의 원칙을 고수하며, 관절경 술식 하에서도 개방 술식의 응용을 끝까지 찾아 보는 모습이라든지,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 못지 않게 활동을 하려는 Mario Randelli등, 자기 안에 안주하는 모습보다는 더 크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학문의 길은 끝이 있을 수 없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무엇을 다시 시작하든지 간에, 이것이 결국 다른 이들이 끝을 보지 못한 것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언제 시작해도 의미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이 여행의 의미는 거꾸로 시작하는 법을 배우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준 대한 견관절학회와, 다소간 힘들기도 하였던 여정을 같이한 김영규교수에 감사하며, 많은 한국의 견관절의사들이 유럽의 경향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가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다.